

# 남구청 백운광장 시대 한달 넘도록 '혼선'

### 교통 체증 해법 못찾고 임대사업 부진 상가 '텅텅' 인근 상인도 불만... 구청-노조 구내식당 갈등 여전

광주시 남구가 본격적인 '백운광장'시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혼선'을 빚고 있다. 청사 입주로 예정됐던 백운광장 교통 체증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건물 내 상가는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다. 직원 식당과 관련된 노조와 구청간 갈등으로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백운광장, 정체 여전=남구청 개청에 앞서 지난 3월 8일부터 월산동에서 봉선동 방면을 향하는 직진 신호가 개설돼 10초 가량 신호 주기가 늘어나면서 출·퇴근 차량 정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월교차로에서 백운교교 방향 좌회전차로를 18m 이설하고, 교통섬을 확대해 백운초교와 광주대의 봉선동 방향 교차로 통과거리를 87m에서 64m로 단축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 공사를 실시했지만, 5개의 도시·간선도로가 통과해 하루 16만 여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백운광장의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모(36·남구 주월동)씨는 "어차피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몰리는 것은 똑같은데 때문에 교통체계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교통사고 위험과

혼잡구간 해소를 위해 남구 백운광장에 설치된 고가도로(386m)를 철거하고 길이 840m, 왕복 4차선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도시청도 2호선 건설 착공시기인 2016년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임대 사업 부진, 주변 상인도 울상=신정사는 구 화니백화점 매입이 지난 2010년 11월 말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매입 대금 105억원 가운데 광주시에서 100억이 지원되고 남구는 5억원을 들었다. 신청사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367억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불하는 대가로 22년간 건물 내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을 통해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사 내 상가 임대 사업은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 설비 미비 등이 이유로 4월말 현재 지하 1층, 지상

1~4층에 들어서기로 계획된 20여개의 상가 중 입주자 확정된 상가가 지하 1층 분식점과 편의점, 지상 1층 커피숍 등 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임대 사업이 커피숍, 음식점 등 이미 형성된 주변 상권과 맞물리면서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모(여·30)씨는 "주변에 편의점이 3개나 있는데 남구청 지하에 또 편의점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날씨가 더워지거나 더우면 직원들이 지하 편의점을 이용할텐데 다가를 여름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식당 갈등 여전=상가 임대 권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탁되면서 직원 식당 설치에 대한 갈등이 벌어졌다. 남구 공무원 노조는 "직원식당 설치를 포기하고 임대권자인

자산관리공사의 수익성만을 따진 남구의 결정에 반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이미 복지포인트, 연가보상금 등을 통해 외부 식당 이용에 대한 차액을 보충해왔고, 지하에 들어올 식당과 협약 시 식비가 5000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식당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들고 일어서는 것은 노사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응수했다.

2일 남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식당 설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노조는 투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지방공무원 88명 채용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지방공무원 공개고령경쟁임용시험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행정(장애인·저소득 포함) 80명, 전산 3명, 식품위생 3명, 시설(건축) 2명 등 모두 88명을 선발한다.

시설직렬(2명)은 전남 지역 특성화고교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접수하고, 오는 8월 24일 필기시험에 이어 면접 등을 거쳐 9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취업 창업박람회 인파 북적. 광주시 북구 취업 창업 박람회가 지난 30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민원24' 애플리케이션 주민증 분실신고 가능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민원24'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나 대학성적, 졸업증명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1일부터 '민원24' 앱을 개편, 제공서비스를 10종에서 20종으로 늘린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민원24 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대학 성적·재학·졸업 증명서 8종을 모바일 신청 후 가까운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찾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 “장덕도서관 연말 개관 해 주오”

### 예산 9억 확보못해 계획 차질... 수완지구 주민 불만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신축중인 '장덕도서관'이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져 당초 계획보다 개관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사업비 64억4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8월 장덕동 1600번지에 연면적 277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575개 열람석

을 갖춘 '장덕도서관'건립 공사를 착공했다.

예초 장덕도서관은 당초 4월말 개관 예정이었으나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돼 마무리 공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이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관련 예산 9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지지부진 상태로 올해 말

까지도 개관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차례 개관일시를 묻고 있으나 구청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예산 확보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장덕도서관은 광주시가 지난 2009년도 인구 5만명당 1개소의 거점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도 광복회

계사업으로 추진, 광주시가 29억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2년에 걸쳐서 20억원은 지원했으나 9억원은 아직까지 미확보된 상태로 오는 5월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덕도서관 개관은 수완지구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숙원사업 이다"며 "최근 광주시를 방문해 조속한 개관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2분 해질 19시 18분 달돋음 -시-본 달질 10시 40분

**젖빛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7/18°C
목포	구름많음	7/15°C
여수	구름많음	9/14°C
나주	구름많음	7/18°C
완도	구름많음	8/17°C
구례	구름많음	6/18°C
강진	구름많음	7/16°C
해남	구름많음	7/17°C
장흥	구름많음	6/17°C
순천	구름많음	5/17°C
영광	구름많음	8/16°C
진도	구름많음	8/15°C
전주	구름많음	6/18°C
군산	구름많음	6/15°C
남원	구름많음	4/17°C
홍산도	구름많음	8/13°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김기씨수  
주의 높음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7/19	6/19	7/22	8/23	12/22	13/22

### “지리산 산행 반달가슴곰 조심하세요”

정규탐방로 개방 공단은 올해 새끼를 출산해 양육하는 어미 반달가슴곰 두 마리의 보호 본능이 강하고 2004년 복원사업 초기 새끼였던 곰이 성장해 활동 면적이 지리산 전역으로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탐방객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탐방로 색갈 초입, 곰 활동지역 등에 위험을 알리는 홍보깃발 370개를 설치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관철환 원장은 “탐방객 스스로 출입이 통제된 색갈 통행이나 야간 산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진도 오류리 해저발굴 재개 재가 드러났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1일 오전 11시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해역에서 수중 발굴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開水祭)를 지내고 이곳에 대한 발굴 조사를 재개한다. 오류리 수중문화재는 청자배개를 비롯한 고려청자 9점을 도굴한 일당이 붙잡히면서 그 존

연구소는 지난해 9월 이래 긴급탐사와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해 강진에서 생산된 최고급 품질의 고려청자와 일진왜란 때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을 비롯한 전경유물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11월말까지 한다.

/\*연합뉴스

**氣의고장영암우수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타지역 농특산물에 비해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달마지선물세트** **장류세트** **건나물** **빨간양파즙**

**달마지 쌀골드** **매력한우** **무화과 잼/무화과** **단감/대봉감** **영암 배** **호박고구마/밤고구마**

구입문의 [www.gichandle.co.kr](http://www.gichandle.co.kr) 또는 “기찬들” 영암군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Tel. 061)473-2130, 470-2846, 2809

결제계좌 | (농협) 652-01-006318 (영암군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택배발송 | 50,000원이상 구입시 택배비 무료